

## 2026년 MSCI 시장접근성 점검 결과

최성락 | 자본유출입부장 (3705-6213)

- 6.19(한국시간) 발표된 MSCI의 연례 시장접근성 점검\* 결과, 한국은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의 평가가 “개선 필요” →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로 한 단계 상승. 여타 항목에 대한 평가는 작년과 동일

\*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각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18개 항목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 “++”(문제 없음),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 “-”(개선 필요). 이후 1)경제발전도, 2)시장규모, 3)시장접근성을 종합하여 해당 시장을 선진국/신흥국/프론티어 등으로 분류

-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을 제외하면 작년 평가를 유지. 총 18개 항목 중 “++”(문제 없음) 8개,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 5개, “-”(개선 필요) 5개
  - 한국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거래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투자상품이 증가

〈표1〉 한국 시장에 대한 2026년 MSCI 시장접근성 점검 결과

리뷰 항목	'25년 6월	'26년 6월	변경 여부	EM내 국가수		
				++	+	-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개방성						
투자자 자격 요건	++	++	변경 없음	22	3	0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수준	++	++	"	13	4	8
외국인 투자가능 잔여 주식	+	+	"	18	3	4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	+	"	3	18	4
자본유출입 편의성						
자본유출입 통제 수준	++	++	"	23	2	0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	-	"	12	5	8
시장운영 체계의 효율성						
투자자 등록 및 계좌 설정	-	-	"	9	10	6
시장 규제	++	++	"	14	11	0
정보 흐름	-	-	"	10	12	3
청산 및 결제	-	-	"	6	13	6
수탁	++	++	"	21	4	0
기재 및 예탁	++	++	"	23	2	0
거래	++	++	"	23	2	0
양도성	-	-	"	8	8	9
증권 대차	++	++	"	8	9	8
공매도	+	+	"	4	11	10
투자상품 가용성	-	+	개선	20	2	3
제도 체계의 안정성	+	+	변경 없음	5	18	2

자료: MSCI. 주) “++”: 문제 없음. “+”: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 “-”: 개선 필요

- MSCI는 최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개선 조치들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
  - 전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 등 향후 시행 예정인 정책 조치들을 소개하였으며, 배당 지급 절차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여러 분야에 걸친 추가적인 조치들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태환성, 계좌 개설 및 결제 업무에서의 실무적 마찰, 영문 정보 부족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 개선 단계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실제 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이 제한적이라고 지적
- MSCI는 6월 24일(한국시간) 연례 시장 분류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시장이 선진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등재될 필요

<표2> '25년 vs '26년 한국 시장접근성에 대한 항목별 코멘트(“+”, “-“ 항목)

세부 항목	'25년 6월	'26년 6월
외국인 투자가능 잔여 주식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	- MSCI Korea IMI 지수 중 0.3%~1.0%가 외국인 투자제한의 적용을 받음	- 작년과 동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	- 영문 기업정보들이 항상 가용한 것은 아님 - '23년 단계적 영문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 1단계는 '25년 만료. 2단계는 감독당국의 검토 후 '26년부터 시행 예정	- 영문 기업정보들이 항상 가용한 것은 아님 - '23년 단계적 영문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2단계가 '26년 5월 시작되었고, 3단계는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27년 시행 예정 - 시행이 완료되면 정책 효과를 평가할 필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개선 필요]	- 현물인도가 가능한 역외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역내 시장은 제약(constraints) 존재 - '23년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발표 이후 RFI의 국내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일시 원화차입(overdraft) 도입 등 개선 진행 - 당국은 '25년초 시장 발전을 위한 추가 조치 도입. MSCI는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	- 현물인수도가 완전하게 가능한 역외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역내 외환시장은 제약(constraints) 존재 - '23년 이후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26년 7월에는 역내시장 24시간 운영, '27년부터는 역외 원화결제 개시 예정
투자자 등록 및 계좌 설정 [개선 필요]	- 등록이 의무 - 신규 투자자는 '23년 12월부터 LEI(법인식 별기호)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24년 6월에는 LEI 서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 시행 -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LEI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존 계좌들이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도 제약	- 등록이 의무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에서 LEI(법인식 별기호)로의 전환 과정이 진행 중이며, 두개의 제도가 공존하면서 업무 마찰을 야기. 이에 따라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에도 영향

<p>정보 흐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문 정보가 모든 기업들에 대해 항상 가능하지는 않음</li> <li>-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배당락 이후에야 배당금액을 공시하며, 예상 배당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시되지 않음</li> <li>- '24년 배당정책 투명성 제고, 배당락 이전 배당 규모 확정 등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기업들의 이행 수준은 매우 제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시장의 세부 정보들이 항상 영문으로 공표되지는 않음</li> <li>- 배당절차 개선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 수준은 아직 부분적이나, 나아지는 중</li> </ul>
<p>청산 및 결제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초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허용, 유니버스 활성화 추진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결제 과정은 대체로 ID당 진행.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는 제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제의 대부분은 여전히 투자자 ID를 기반으로 진행.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및 유니버스 계좌의 실제 활용은 제한적</li> <li>- 한국예탁원은 최근 결제 가능 시간을 앞당기고 결제촉진대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실시하여 증권사의 사전결제대금 조달 부담을 경감. 다만, 대금 계산방식의 불명확성으로 결제 절차의 비효율성이 발생</li> </ul>
<p>양도성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제도개선의 일부로 장외거래 사후 보고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실제 활성화는 제한적. 시장참가자들은 실무상 어려움(execution remains challenging)이 있음을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제도개선에 따라 현물 이전과 장외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아직 보편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지는 못함</li> </ul>
<p>공매도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3년 공매도 금지 해제. MSCI는 관련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li> <li>- “-”(개선 필요)에서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로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도는 허용되나 제한 존재</li> <li>- '25년초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업무 마찰(operational friction), 규정 준수 부담(compliance burden), 규제의 복잡성(regulatory complexity) 등이 야기. MSCI는 공매도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li> </ul>
<p>투자상품 가용성 [개선 필요] →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거래소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주가지수를 기초하는 파생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li> <li>- 한국거래소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존재</li> </ul>

자료: MSCI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3 혹은 slchoi@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